

## 치은열구내 수복물의 치주적 고려

이영규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수복치료와 치주치료는 치과 임상의 2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수복치료의 관심은 치아의 치근부위에 있고, 치주치료는 치아보다는 치아를 지지하는 연조직과 경조직에 관심을 두고 서로 다른 치료체계로 발전해 왔다. 수복치료에서는 기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주조직의 생물학적 측면이 무시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수복치료와 치주치료의 포괄적 이해가 없이는 성공적인 치과 치료는 불가능하다.

치주조직은 크게 치열의 기능, 심미, 수명을 결정하고 기초가 된다. 현대치과에서는 환자의 심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복물 변연을 치은 열구내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착의 상실이 수복물 변연을 치은 연상에 위치시킨 경우보다 치은열구내에 위치시킨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는 변연조직의 퇴축을 야기하여 오히려 심미성을 해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심미성을 위한 안정된 변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는 첫째, 치주조직의 치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지나 치주건강이 이루어진 후에 수복술식을 시작해야 하며, 둘째, 치아삭제, 인상채득, 임시 수복물과 관련된 치주조직에 대한 위해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복물에 의한 혹은 수복술식에 의한 생리학적 폭경의 침범이나 치태조절의 방해는 치주조직의 건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심미성 뿐 아니라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수복치료에서는 치주 생물학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반대로 치주치료에서도 수복치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시간에는 변연조직의 퇴축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치은열구내 수복 치료 후에 변연조직의 퇴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약력

198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83 - 1985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레지던트(치주과)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5 - 현재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